WWW.KMI.RE.KR

제 225호 · 2013년 10월 10일

해운·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OREA MARITIME INSTITUT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IFM(Industry Funds Management), 브리스베인항 지분확보위해 입찰 참여
2. CSCL(China Shipping Container Line), 롄윈강항 지분 55% 매각 예정
3. 냉동·냉장 해상물동량 증가로 특수선의 장래 불확실성 수면하 잠재
4. 벨기에, 복합물류허브 건설 추진

물류시장동향

1. 인도철도, 10월 1일부터 운임요금 15% 인상
2. 러시아 남부 12개 항만 총 물동량, 2030년에 412백만톤까지 증가 기대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사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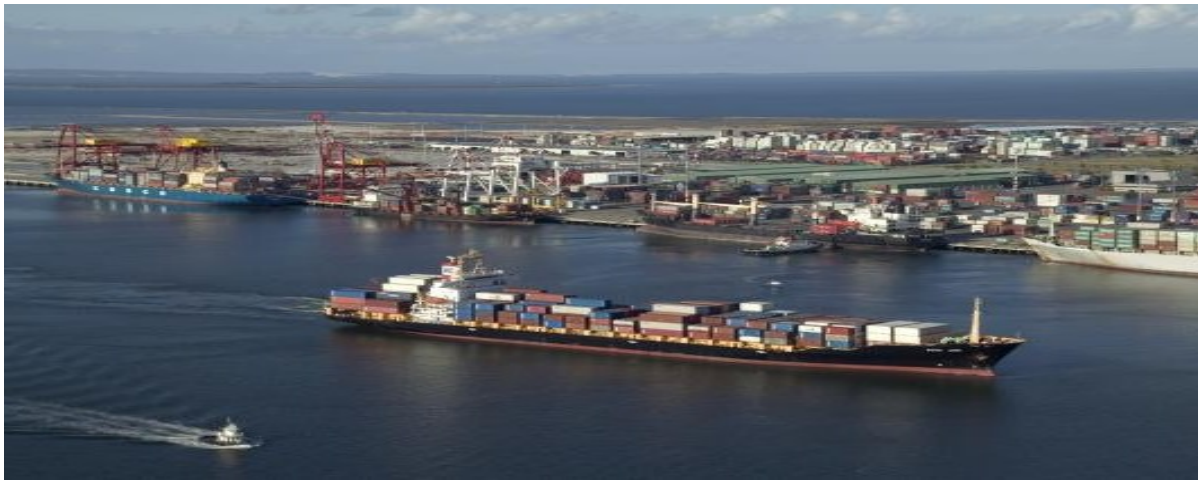
□ IFM(Industry Funds Management), 브리스베인항 지분확보위해 입찰 참여

○ IFM이 브리스베인항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9억 AUS달러 규모의 GIP(Global Infrastructure Partners') 지분 매각 입찰에 참여
- GIP 주식 매입이 성사되면 IFM의 보유지분은 53.4%로 증가
- GIP와 QIC[1]는 2010년에 5억 7,500만 AUS달러를 투자하여 26.7%의 지분을 매입

○ GIP가 투자한 브리스베인항의 26.7% 지분을 9억 AUS달러에 매각한다면 브리스베인항의 총 지분 가치는 총 가치는 33억 7,000만 AUS달러로 3년 전에 비해 46% 증가
- 퀸즈랜드 정부는 2010년에 동항의 운영권을 23억 AUS달러에 판매(선석길이 7,200m, 29선석)
- GIP는 브리스베인항의 투자금중 약 60%, 3억 4,500만 AUS달러를 은행에서 차입
- 8억 AUS달러 ~ 9억 AUS달러 사이에 지분을 매각한다면 두 배 이상의 투자수익을 실현

○ 지분매각은 IFM이 GIP에 제안
- GIP는 시드니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더 많은 입찰자 모집을 위해 모건스탠리를 매각 주간사로 지정
- 아부다비 투자위원회는 브리스베인항에 1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20% 이하 지분에 대한 국부펀드세금면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진출 불가

< IFM 브리스베인항 지분확보위해 입찰 참여 >



자료 : www.portstrategy.com

1) QIC(퀸즈랜드투자공사) : 1989년 호주 재무부 산하에 설립됐다가 1991년에 독립하였으며, 2013년 6월 말 기준 운용자산 규모가 703억호주달러(약 73조원)에 달하는 QIC는 호주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기관투자가임

○ GIP의 지분 매각 입찰은 9월 중순 이후 진행 중

- 캐나다 Borealis Infrastructure의 가능성도 높은 가운데, 매각 절차는 약 12주에 걸쳐 진행 예정

자료 : www.portstrategy.com, 2013.9.27.

김우선 전문연구원 (☎ 02-2105-2889, firstkim@kmi.re.kr)

□ CSCL(China Shipping Container Line), 롄윈강항 지분 55% 매각 예정

○ CSCL은 중국 장수성 롄위강항(Lianyungang Port)의 New Oriental Container Terminal(NOCT) 지분 55%를 매각할 계획
-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매각 금액은 최소 124백만불(759백만위안) 수준일 것으로 예상

○ CSCL의 자회사인 China Shipping Terminal(CST)과 지역의 터미널 운영사(지분 45%)와 공동으로 설립된 롄윈강 NOCT는 2006년부터 투자 및 개발을 진행 중
- 총 5개 선석, 연간 약 2백만TEU의 처리능력을 갖춘 동 터미널은 현재 모든 건설이 완료되어 시범 운영 중

○ CSCL의 지분 매각은 CST의 자산 효율성 증대, 자산구조 최적화와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적 사업추진 방향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
- 매각은 지역 외환거래소에서 공공입찰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매각 후 CSCL은 약 206백만 위안의 현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550백만 위안은 신규개발사업에 투자할 계획

○ 롄윈강항은 컨테이너 처리량 기준 중국 10대 항만으로 2012년 전년 대비 3.5% 증가한 5,020천 TEU를 처리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
- 또한 TSR의 출발점으로서 중국내에서 지역적 중요도가 높으며, 우리나라 측면에서도 한국발 중앙아시아향 TSR 이용 화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카페리 항로도 개설되어 운영 중
- 아울러 장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터미널 전면에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매립 중

○ 롄윈강항은 기간 항로상의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글로벌 선사의 기항 선호도가 높으며, 많은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배후권역도 확보하고 있어 장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그러나 중국항만의 경우 대형 항만이 주변 중소형 항만의 성장을 견제하는 행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 시 다양한 조사 필요

자료 : www.lloydsloadinglist.com, 2013.9.

김근섭 전문연구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냉동·냉장 해상물동량 증가로 특수선의 장래 불확실성 수면하 잠재

○ 2002년~2012년 세계 냉동·냉장화물 교역량은 5,210만톤 증가하여, 연평균 3.6%의 증가율을 기록[1)]
- 이 중 해상물동량은 2002년의 6,680만톤에서 2012년 9,240만톤으로 연평균 3.3% 증가

○ 세계 냉동·냉장 화물 중 물동량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품목은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 내장, 양고기 등 육류
- 2002년의 2,280만톤에서 2012년에는 3,630만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기록
- 이 중 해상으로 운송된 육류는 같은 기간 830만톤·연평균 4.6% 증가

○ 해상 물동량 기준으로 세계 냉동·냉장 화물 중 열대과일 부문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
- 2012년 파인애플, 키위, 아보카도 등 열대과일 부문의 해상 물동량은 450만 톤으로, 규모면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적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9.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2012년에 많은 컨테이너 선사가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냉장화물은 해운산업 전반에 걸쳐 소폭의 수익달성에 기여
- 전문 냉동 부문에서 Seatrade사[2)]는 냉동선이 77척 감소하여 수송능력이 전년대비 12.5%, 5,100만 입방피트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냉동/냉장화물 운송사로서의 입지를 고수

○ 지난 1년간 대량의 선박 해체가 이뤄져 왔지만 10만 입방피트의 수송능력 규모에 상당하는 냉동·냉장선 600척의 평균 선령은 24년으로 증가
- 이 중 Star Reefers사는 주요 냉동·냉장 선사 중 가장 젊은 선대(평균 연령 14년)를 보유
- 반면 Baltic Reefers사의 평균 선령은 28년으로, 가장 오래된 선단을 보유

○ 2013년 상반기는 전문 냉동·냉장 해운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기 호전의 전조를 보인 시기
- 기간용선 요율이 회복되었으며, 선박 해체로 보다 관리가 용이한 규모로 선박이 감소

○ 향후 수년간 컨테이너선이 94% 이상의 냉동·냉장화물 수송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
- 냉동·냉장 특수선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냉동·냉장 화물이 소폭 증가하더라도 그 증가분은 컨테이너선의 의해 운송되어야 하는 상황
- 냉동·냉장 특수선의 선조 발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컨테이너 선대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1) 'Reefer Shipping Market Annual Review and Forecast', Drewry, 2013.
2) Seatrade사는 전세계 냉동·냉장선 수송능력의 20%이상인 10만 입방피트 이상을 공급

○ 그러나 현재 컨테이너선과 냉동·냉장 특수선이 냉동·냉장화물 해상수송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으며, 전체 물동량이 감소하더라도 냉동·냉장화물특수선의 이용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자료 : www.lloydsloadinglist.com, 2013.9.25.

김홍매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 벨기에, 복합물류허브 건설 추진

○ 벨기에가 동부 리에주 내륙항인 Trilogiport에 복합물류허브 건설 추진 중
- 알버트 수로의 둑 지역에 120Ha 규모로 추진예정인 Trilogiport 복합물류허브 사업은 2015년 하반기에 운영 개시예정
-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약 4천 5백만 유로는 공공펀드 형태로 벨기에 당국과 유럽연합으로 부터 조달 계획
- 민간부문의 초기투자액은 약 1억 천 5백만 유로로 추정

○ Trilogiport 복합물류허브는 강, 철도, 그리고 도로 등 3개의 운송수단과 연결
- 1850 미터 길이의 안벽을 갖추게 되는 15ha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은 유로포트와 DP World에 의해 운영 예정
- 주요 철도망과의 연결을 위한 700미터 길이의 선로 및 화물철도터미널 건설 예정
- 리에주 인근 자동차 도로와의 연결을 위한 도로건설도 예정

○ Trilogiport 복합물류허브는 유럽의 주요 항만인 로테르담항, 앤트워프항, 제브류주항을 대상으로 관문 역할 수행 기대
- Trilogiport 복합물류허브에서 앤트워프항까지의 화물운송 시간은 약 14시간, 로테르담항까지는 24시간 소요 예상
- 20만 평방미터 규모의 창고 및 배송센터 건설 예정
- 또한 해당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약 2000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



자료 : www.lloydsloadinglist.com

자료 : www.lloydsloadinglist.com, 2013.9.25.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물류시장동향

□ 인도철도, 10월 1일부터 운임요금 15% 인상

○ 인도철도(Indian Railways)는 성수기 조정관세의 일환으로, 10월 1일부터 모든 벌크화물에 대한 운임요금을 15% 인상한다고 발표
- 성수기 운임요금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모든 화물에 대해 적용되지만, 컨테이너와 자동차 부문은 본 성수기 운임요금정책에서 제외
- 인도의 무역협회는 이러한 운임정책이 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

○ 인도철도는 2013년 5월에서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4억 2,614만톤을 처리

자료 : www.joc.com, 2013.10.1.

최은혜 연구원 (☎ 02-2105-2838, choeeunhye@kmi.re.kr)

□ 러시아 남부 12개 항만 총 물동량, 2030년에 412백만톤까지 증가 기대

○ 러시아 흑해 및 아조프해에 위치한 12개 항만의 총 물동량이 2030년에 412백만톤까지 증대될 것으로 기대
- 이는 러시아연방정부의 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타만(Taman)항 건화물 처리 지역 조성이 주요 목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
- 연달아 템류크(Temryuk), 캅카스(Kavkaz), 노보로시스크(Novorossisk), 소치(Sochi), 아조프(Azov), 로스토프나도누(Rostov-na-Donu)항의 현대화 작업도 진행 예정
- 러시아 흑해 및 아조프해 지역의 총 물동량은 2012년에 176.7백만톤에 달했으나, 2013년 1~8월에는 133.2백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
- 이 지역 물동량은 러시아 전체 항만 물동량의 29%를 차지

자료 : www.morvesti.ru, 2013.10.4.

박한나 연구원 (☎ 02-2105-2914, hnp@kmi.re.kr)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센터(KMI) 문의
- 해외투자사업 정보 및 해외투자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등 해외진출 관심기업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로 문의

↓

사업신청서 작성
- 해외투자사업 관련 구체적인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신청서 작성

↓

사업추진계획 협의
- 기업의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해운정책과)와 사전 지원사항 협의

↓

예비조사 실시
- 사업가능성 확인을 위한 현지 경제무역 현황 및 물동량, O/D, 시설 등 해운물류현황 조사
- 현지 조사(Fact Finding) 실시

↓ 공동추진

설명회 개최
- 기업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 초기 관심기업 우선지원

↓

협의체 구성
- 관심기업들의 논의를 통한 협의체(컨소시엄) 구성

↓ 단독추진

사업추진계획 확정
- 사업추진방향, 전략, 정부 지원사항 등 협의

↓

사업타당성 조사(FS)
- 물동량 예측, 투자비, 자금조달 계획 등

↓

사업추진 및 투자
- 투자재원마련 등 사업추진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